

# 이 한방, 징크스도 저주도 날렸다



355억짜리 '슛' 독일의 마이로 괴체(맨 왼쪽)가 14일(한국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월드컵 결승에서 연장 후반 8분 천금같은 결승골을 넣고 있다. 독일은 우승 상금 3500만달러(한화 약 355억원)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전차군단 독일이 역대 최초로 미주 대륙에서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 올린 유럽 국가가 되면서 세계 축구사의 새로운 장을 활짝 열었다.

독일은 14일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결승에서 연장 후반 끝에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고 1990년 이탈리아 대회 이후 24년 만에 통산 네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 ◇7전 6승1무...완벽한 정상 등극

독일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포르투갈을 4-0으로 완파하면서 전차군단의 사동을 힘차게 걸었다. 가나와 2-2로 비겨 주춤하는가 싶었지만 미국을 1-0으로 따돌리며 16강에 올랐다.

16강전에서 북병 알제리를 만나 고전했지만 강팀의 품격을 보여주며 연장 접전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프랑스와의 8강에서 1-0 신승을 거둔 뒤 4강에서 감춰왔던 발톱을 유감 없이 드러냈다. 영원한 우승 후보인 주최국 브라질을 맞아 전 반에만 다섯 골을 퍼부은 끝에 7-1 압승을 거두며 브라질을 도탄에 빠뜨렸다.

대망의 결승에서 독일은 '주최 대륙 국가 우승'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아르헨티나를 맞아 쉽지 않은 경기를 치렀다. 아르헨티나는 수비선을 끌어내렸다가 빠른 역습으로 반격하는 전술로 독일을 괴롭혔다.

일진일퇴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승부차기로 가는 듯했던



## 獅, 유럽 최초 남미서 우승...펠레 우승 예견 적중 아르헨티나와 공방 끝 연장 후반 8분 괴체 결승골 24년만에 통산 4번째...독일축구, 세계 최강 우뚝

연장 후반 8분, 마리오 괴체(바이에른 뮌헨)의 천금 같은 결승골이 터지면서 독일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2인자에서 1인자로...유럽 강세의 선봉  
이번 우승으로 독일은 그간 세계적으로는 브라질, 유럽 내에서는 이탈리아에 밀려 2인자에 머무르던 이미지를 탈피하고 '최강'으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화려한 업적을 일구었다.

우선 통산 5회로 최다 우승을 자랑하는 브라질에 한 발짝 다가섰고 이탈리아와 나란히 유럽 최다 우승 국가가 됐다. 결승 진출 횟수는 통산 8번째로 브라질(7차례)을 제치고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브라질이 60년 이상 독주해오던 월드컵 본선 통산 득점에 서도 224골로 브라질(221골)을 따돌렸다. 아울러 조별리그 1차전에서 본선 통산 100경기를 달성, 세계 최초로 '센추리클

럽' 시대를 열었다.

그뿐만 아니라 2006년 이탈리아, 2010년 스페인에 이어 3개 대회 연속 유럽 국가 우승의 맥을 이음으로써 유럽 축구의 강세를 재확인했다. 특히 처음으로 미주 대륙, 그것도 브라질에서 우승한 유럽 국가가 됐다. 동·서독 통일 이후 첫 번째 우승이라는 감격도 더했다.

◇압박·역습에 티키타카 가미...프로리그 선전도 한몫  
전통적 축구 강호들의 몰락과 신예 혹은 중간급 국가들의 대약진이라는 변혁의 바람 속에 독일이 곳곳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자기혁신 덕분이었다. 다소 투박하다는 평가도 받았던 독일 축구는 역사적이게도 이번 대회에서 가장 급격한 몰락을 경험한 스페인의 '티키타카'를 체화하면서 강해졌다.

요아힘 뢰브 독일 대표팀 감독은 힘, 높이, 체력을 강조하

던 기존의 선 굵은 독일 축구에 티키타카를 가미했다. 체력을 앞세운 강력한 전진 압박, 속도를 강조한 빠른 역습에 스페인 축구의 장점인 높은 점유율과 섬세한 패스를 가미하면서 독일은 당대 최강의 팀을 완성했다.

자국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고공행진도 큰 역할을 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대회에 무려 15명의 출전자를 배출, 세계 최강의 클럽임을 입증했다. 7명씩 내보낸 클럽도 도르트문트, 샬케04, 볼프스부르크 등 세 곳이나 된다. 독일 대표팀도 23명 중 17명을 분데스리가 출신으로 채워 뛰어난 조직력의 밑바탕을 그렸다.

◇다음 목표는 2016년 유럽 정복, 2018년 월드컵 2연패  
독일의 다음 목표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2016년 유럽축구 선수권대회(유로 2016)와 2018 러시아 월드컵이다. 유로는 처음부터 강호들의 격렬한 충돌이 이어지는 대회다. 스페인은 4년 전 남아공 월드컵 우승에 이어 유로 2012까지 휩쓸면서 '무적함대'의 시대를 누리며 왔다.

독일이 4년 뒤 월드컵마저 우승한다면 이탈리아와 브라질만 해낸 월드컵 2연패에 성공하는 동시에 월드컵 통산 5회 우승으로 브라질과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진정한 1인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전성기를 활짝 열어젖힌 독일 전차군단의 위풍당당한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 '골든볼' 받고 고개 숙인 메시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27·바르셀로나)는 골든볼을 받아 들고도 끝내 웃지 못했다. 리오넬 메시는 14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 최전방에 섰지만 득점하지 못하고 독일이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메시는 경기 뒤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대회를 마무리하게 돼 슬프다. 우리는 이보다 나은 결과를 낼 자격이 있었다"며 한숨을 도했다. 그는 월드컵 우승을 제외하고는 축구 선수로서 이룰 것을 모두 이뤘다. 매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국제축구연맹(FIFA) 발롱도르를 4년 연속 수상했다. 소속팀에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우승컵과 득점왕 타이틀을 '밥 먹듯이' 차지했으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정상도 경험했다.

메시가 이번 대회 우승컵에 임박하면 그의 우상이었던 '축구의 신' 디에고 마라도나를 뛰어넘는 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메시는 "골든볼을 받은 것은 소용없다"면서 "오직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만 생각했다. 이렇게 패배하게 돼 아프다"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알레한드로 사베야 아르헨티나 감독은 "메시는 언제나 최고의 선수였다. 앞으로로도 계속 팬들은 신전의 일원일 것"이라며 위로했다.

연합뉴스

## '득점왕'은 6골 로드리게스

〈콜롬비아〉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8강까지 오르며 '돌풍'을 일으킨 콜롬비아의 '특급 골잡이' 하메스 로드리게스(23·AS모나코)가 '아디아스 골든 부트'(득점왕)의 주인공이 됐다.

로드리게스는 14일 막을 내린 브라질 월드컵에서 6골(2도움)을 기록, 토마스 뮐러(독일·5골 3도움), 네이마르(브라질),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이상 4골 1도움), 로빈 판페르시(네덜란드·4골)를 제치고 득점왕인 '골든 부트' 1위에 올랐다.

2011년 9월 콜롬비아 유니폼을 입고 A매치에 데뷔한 로드리게스는 처음 나선 월드컵 무대에서 경쟁자들을 제치고 득점왕을 차지하는 기쁨을 맛봤다. 로드리게스는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과 16강과 8강전에서 5경기 연속 득점(총 6골)을 작성하며 세계적인 골잡이로 우뚝 섰다.

그의 득점 도전은 콜롬비아가 8강에서 브라질에 패해 탈락하며 마무리됐지만 경쟁자들이 8강 이후부터 골을 쫓지 못하면서 '골든 부트' 수상자로 설 수 있었다.

역대 월드컵에서 8강 탈락의 고배를 마신 팀에서 득점왕이 나온 사례는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